

## COMMUNITY PROJECTS BY ARTISTS

원전

인천 배다리-우각로

안양 석수시장 프로젝트

**마석 이야기**

동두천 프로젝트

리포트

기획자 인터뷰



**양철모 <마석 이야기> 예술감독** 미디어의 사회적 역할에 주

목해온 양철모 <마석 이야

기> 예술감독을 만났다. 그에게 직접 듣는 <마석 이야기>의 의미와 가능성.

인터뷰 **채은영** 독립 큐레이터 | 사진 **박정훈**



# “우리는 작가이자 일꾼, 갈등 조정자, 교육자, 그 모든 것이어야 합니다.”

**문화예술** <마석 이야기>는 2006년에 진행했던 <아트인시티> 프로젝트이지만, 기억의 재구성 측면에서 돌아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듯하네요. <마석 이야기>를 포함해 최근 공공미술, 혹은 공공예술이라는 이름으로 지역공동체를 위한 방향과 활동을 설정하는 예술작업들이 많습니다. 학교에서 사진을 공부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역공동체 혹은 커뮤니티와 관련된 예술 활동에 관심을 두게 된 계기는 무엇이었나요?

**양철모** 대학에서 사진을 전공하고 난 후, 사진 작업을 하고 갤러리에 전시를 하는 일반적인 신진작가의 길을 걷기보단 다양한 경험을 했어요. 지방 갤러리에서 허드렛일을 하기도 하고 디자이너들과 출판이나 상업적 활동도 좀 했어요. 그러다가 4년 전인가, 국가인권위원회 포스터 촬영을 위해 명동성당에 갔다가 집회 중인 이주노동자들과 이야기를 할 기회가 생겼죠. 그 후 1년여간 마석이나 안양 등 이주노동자 관련 지역에서 여러 사람들과 교류하게 됐고, 믹스라이스와 함께 <세계이주노동자의 날 기념 전시>도 기획했었죠. 서울시립 청소년직업 체험센터의 하자센터에서 십대 학생들에게 사진을 가르치기도 하고... 그러면서 사진의 사회적 역할에 대한 고민을 키워갔던 것 같아요. 작가의 재현 대상이 아닌, 주체적 자존감이 있는 대상으로서 커뮤니티와 교류하고 소통한다는 것에 대해 매력을 느끼게 된 거죠. 그 안에서 사진이란 미디어가 갖는 사회적 실천의 가능성을 발견했다고 생각해요.

**문화예술**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마석 이야기> 프로젝트를 진행한 시기와 연결되는 것 같은데요.

**양철모** 이주노동자 관련 활동을 하시는 분들과 교류할 때, 제가 기록 사진을 많이 찍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순간 제가 찍는 사진이 일반적으로 미디어에서 이주노동자들을 보여주는 방식이나 태도와 별반 다르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주노동자가 주체적 자존감을 가지고 스스로의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미디어 리터러시’를 갖게 하는 데 사진이 할 수 있는



사회적 역할을 고민했고, 마침 마석 가구단지에서 이주노동자들과 미디어 협력 작업을 하는 믹스라이스를 알게 돼서 자주 방문하게 되었죠.

**문화예술**

제가 2006년 8월 마석에 처음 갔을 때, 참 묘한 기분이 들었던 게 기억나네요. 마석이란 공간은 어떤 특징이 있다고 보시나요? 공공예술 프로젝트의 특성상, 특정 공간이 가진 배경과 특징이 향후 프로젝트의 목적과 실행에서 중요한 변수가 될 것 같은데요.

**양철모**

역사적 상징성 측면에서는 소수자의 공간이에요. 한센인들의 이주 지역으로 닭이나 돼지를 키우면서 생성된 곳이지요. 지금은 소규모 가구공장으로 모여든 이주노동자들도 거주하고 있구요. 그리고 공간의 물리적 측면에서 보면 출입구가 한 개뿐인 곳이었죠. 이젠 몇 개 생겼지만요. 그래서 예전에 단속을 하면 이주노동자들이 도망갈 수 있는 길이 없었는데, 재미있는 게 오히려 주민들의 반대로 단속을 하기 어려웠대요. 이 지역의 특성상 경제적으로 주민들과 이주노동자들의 상호 의존성이 높기 때문이죠. 그리고 마석에는 공공 영역의 커뮤니티 장이자 갈등을 드러내는 녹촌분교가 있어요. 한센인들의 기부로 세워져 그들의 자녀가 주로 다니던 학교인데 가까운 중학교 진학이 어려워 점차 학생 수가 줄어들고 최근에는 이주노동자들의 자녀가 다니고 있죠. 녹촌분교는 다양한 학생들과의 활동으로 대안 학교처럼 인식되고 있어요. 이주노동자들에게는 공장과 거주 공간을 왕래하는 지름길이기도 하고, 축구 같은 체육 활동을 하거나 모여서 여가를 즐기는 마석 유일의 공간이에요. 그런데 이주노동자들이 담배를 피우거나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는 등 교육상의 문제로 학교 선생님들이나 일부 주민과 갈등이 있었어요. 게다가 가구단지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와 악취가 학교 학생들에게 안 좋은 상황이었죠. 이렇게 녹촌분교는 한센인, 이주노동자, 학교 선생님, 주민, 가구단지 사장 등 다양한 커뮤니티가 갈등하고 소통하는 장으로서의 의미가 있어요.

**문화예술**

그렇다면 <마석 이야기>에서는 마석의 역사성과 녹촌분교의 장소성을 고려하셨겠네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신 건 무엇이었나요?

**양철모**

마석은 한센인과 이주노동자라는 소수자의 기억이 담긴 공간이에요. 전 이렇게 공통된 의식을 바탕으로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공공성을 찾아가는 과정을 생각했어요. 과정의 기억을 함께하며 공동체에게 의미 있는 공공성을 찾아감으로써 주체의 자존감, 정체성, 장소성이 생겨나지 않을까 하는 거죠.

**문화예술**

과정의 기억이라... 의미 있는 개념이네요. 제가 보기엔 최근 공공예술이 추상적이고 거시적인 목적이나 개념을 많이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실제 공간에 일상과 예술이 결합되는 구체적인 실천을 위해서 어떤 식으로 접근했나요?

**양철모**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과정의 기억을 함께 할 수 있는 장소로서의 녹촌분교가 <마석 이



이야기)의 핵심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운동장에서 이루어지는 축구 경기나 어린이와 여성 교육 프로그램을 큰 축으로 삼고, 주민들이 함께 그것들을 기획하고 만들어가고 참여하는 과정에 의미를 뒀어요. 녹촌분교의 운동장이 공공영역의 장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배수로 공사를 하고 마사토를 깔아 제 기능을 하게 하는 데 가장 많은 예산이 쓰이기도 했죠. 자갈과 돌멩이가 많아 학생들이나 마을 주민, 이주노동자들이 운동이나 활동을 하기 어려웠던 운동장의 보수 공사를 하고, 낮은 벤치와 쉼터와 농구대를 함께 만들어 갔어요. 이를 통해 공동의 기억과 상상을 소통하고 새로운 공공성을 만들어가는 과정을 함께했다고 볼 수 있어요.

**문화예술** 그래서인지, 제가 마석에 갔을 때 공공예술 프로젝트를 진행한다더니 대체 무엇이 바뀌고 있는지 몰라 헛헛그렁한 운동장을 바라보다 질문했던 게 생각나네요. 제가 좀 무식했죠. 공공예술이라니까 뭔가 눈에 보이는 오브제나 예술작업이 있으리라 여기고 그것부터 찾았으니 말이예요.

**양철모** 아뇨.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시고 “이게 얼마짜리 프로젝트야?” 하시기도 했죠. 저는 <마석 이야기>를 하면서 공공예술을 바라보는 그런 관점의 차이를 어떻게 좁혀가야 할지를 고민했어요. 일반적인 공공예술이 가진 비주얼의 한계를 넘어서면서 애초의 의미를 계속 가지고 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솔직히 <마석이야기>에서 비주얼로 보여줄 수 있는 건 운동장에 있는 게 전부고 그외에는 대부분 프로그램으로 진행되었죠. 특히 마석 지역의 이주노동자들로 결성된 에베레스트FC는 주변 여러 축구 동호회와 축구를 하면서 연대와 소통의 가능성을 만드는 작업이죠. 그밖에도 어린이 교육 프로그램인 <잘잘잘>과 이주 여성 대상의 <손바닥> 워크숍이 있었어요.

**문화예술**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하는 프로젝트이니 만큼 어려운 점도 많았을 것 같은데 가장 어려운 점은 무엇이었나요?

**양철모** 참여하는 작가와의 관계에서는, 공공미술에서 작가의 역할을 위치지우는 데 문제가 있었어요. 창작자로서의 욕망과 매개자로서의 역할이 충돌하기도 했죠. 어떤 젊은 작가의 경우, 자신이 학교에서 알던 예술 작업과 전혀 개념이 다른 것을 하고 있을 때 무척 혼란스러워 하더라고요. 지금 생각해보면 디렉터였던 제 경험의 부족으로 작가들과의 협업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좀더 충분한 소통과 이해로 조정하지 못했기 때문에, 어느 부분에서는 작가들이 개별 작업으로 여긴 측면이 더 있던 것 같아요. 주요 협력의 파트너였던 이주노동자의 경우에는 공공기금 사업으로 공공미술 프로젝트를 마석에서 한다는 것에 대한 이해가 없었고, 예산이 나왔을 때 단순 민원 사업으로 여기는 경우가 많아서 프로젝트 자체를 이해시키는 것이 어려웠고요. 주민들 중에는 젊은 작가들에 대해 권위적인 태도를 보이는 어



른들이 간혹 계시기도 했어요.

**문화예술** 한센인이나 가구공장 업주의 반응은 어땠나요?

**양철모** 한센인들의 경우에는 운동장이 공공장소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 고무적 현상이라고 생각해서인지 상당히 긍정적이었어요. 가구공장 업주의 경우 초기에는 특별한 반응이 없었지만,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변화가 생겼죠. 운동장 쉼터 주변에 있는 공장에서는 먼지를 줄이기 위한 방진막을 설치해주시는 업주도 계셨어요.

**문화예술** 예산 관리에도 어려움이 많으셨을 텐데, 예산 조달이나 지출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졌나요?

**양철모** <마석 이야기>는 문화관광부에서 설립한 공공미술추진위원회의 <아트인시티> 프로젝트에 선정되어 복권기금의 지원을 받았어요. 상한선인 7천만 원을 지원받았죠. 그런데 거기서 배수로 공사에만 3천 3백만 원을 썼어요. 큰 공사였죠. 예술감독인 저에게 책정된 6개월간의 임금이 300만 원이었는데, 그 중 150만 원을 기부해야 했어요. 저뿐만 아니라 다른 기획자도 마찬가지였어요. 다른 작가들의 지원비도 큰 차이는 없었어요. 공공미술 프로젝트를 통해 기획자나 작가들이 생계를 꾸려가야 한다고 생각하진 않지만 몇 개월간의 노력과 고민에 대해 현실적 피드백이 없어요. 이런 것이 공공미술에 관심을 가지고 첫 발을 디딘 젊은 작가와 기획자들의 지속 가능성을 약화시키지 않을까 걱정이예요. 더 많은 작가들의 관심과 참여를 위해서라도 작가의 사회적 역할에 대한 합의가 있어야 할 것 같아요. 사실 저희가 프로젝트를 할 당시만 해도 아티스트 피(artist fee)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없었거든요. 그래도 최근에는 그런 것들이 조금씩 생겨나고 있더라고요. 다른 외부 자원 조성도 그다지 수월하지 않았어요. 그래도 공장 업주들이 방진막 설치와 축구 골대 수리를 직접 해주셨고 운동장 마사토는 지역민들이 기부해주셨죠. 특히 이주노동자들이 십시일반 돈을 모아 학교예를 위해 놀이시설을 기증한 것은 큰 성과라고 할 수 있죠.

**문화예술**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려웠지만 나름의 성과가 있었을 것 같은데요.

**양철모**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겪은 어려움을 통해서 작가로서 예술의 사회적 역할에 대해 좀더 생각했지요. 저 스스로도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점이 많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일반적으로 공공미술 프로젝트에 대한 반성과 성과를 이야기할 때 ‘지속 가능성’에 대해 이야기하는데, 마석이라는 지역은 조금 특수한 경우예요. 여성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많은 이주여성들이 강제 추방되었어요. 남성 이주노동자의 경우에도 그런 경우가 있었고요. 다행히 축구와 어린이 프로그램의 경우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만요.

1년 단위의 계량적 결과물을 내놓고 그 안에서 예술의 역할을 드러내기란 여러 가지 현실적 제약으로 쉽지 않아요. 마석은 머지않아 재개발로 인해 아파트 단지로 바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가구공장과 녹촌분교, 거주민과 이주노동자의 주거지가 철거되겠지요. 마석



은 기억이 소실되는 한국적 근대화의 단면이에요. 하지만 우리와 함께 한 ‘과정의 기억’은 남을 거라고 생각해요. 또한 예술가가 공공기금 사업으로 어느 지역에 수혜적 활동을 한 것으로 오해받지 않도록 공동체에 대한 생각과 실천을 위한 여지를 남겨 두었어요. 운동장 배수로 공사 이후 흙을 다지기 위해 마사토를 채우고 돌을 걸러 내는 작업이 그것이었는데요, 학교 측에서 맡아 여러 사람들과 함께 진행했어요. 그런 게 성과였죠.

**문화예술**

창작자의 예술성과 수용자의 대중성 사이에서의 고민도 있을 것 같아요.

**양철모**

전 일반 시민과 수용자들의 문화 향수권을 지원하기 위한 공공기금으로 공공예술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실행하는 데 동의해요. 다만 공공미술을 통해 작가로서 창작이라는 층위와 위치가 다양해지길 바라요. 그러한 과정을 통해 예술이 사회적 역할에 대한 의미를 가지고 사회적 합의를 지니게 된다면 좋겠어요. 공공예술을 하는 작가나 기획자는 때론 작가로, 때론 행정가로, 때론 갈등 조정자로, 때로 일꾼으로, 때론 교육자로 정말 다양한 상황을 겪어 나가면서 기획을 구체화시키고 발전시켜야 하거든요. 대중문화의 힘이 막강하고 예술에 대한 선입견도 있기 때문에 빠른 시간 내에 공동체 안에 예술을 심는다는 것이 쉽지는 않겠지만, 이런 공동체를 기반으로 하는 공공미술 프로젝트를 통해 상호 간 이해와 교류를 통해 벽을 허물고 공공성을 만들어가는 과정에 대한 경험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 같아요.

**문화예술**

아직 이런 활동들에 대한 용어가 확립되지 않았는데요. 최근에 종종 쓰이고 있는 ‘공공예술’이라는 용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양철모**

예술의 사회적 역할을 수행한다는 큰 목표 아래서 다양한 영역과 사람들 간의 협업을 의미한다면, 공공예술이란 말을 쓰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문화예술**

최근 서울 외의 지역에서 공공예술이 활성화되고 있는데요, 이렇게 지역을 기반한 예술과 제도 내 예술의 관계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양철모**

저는 지역 예술이란 말이 서울을 중심으로 그 외부를 타자화하는 말이라면 그다지 사용하고 싶지는 않아요. 이번 <마석이야기>처럼 특정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작업이나 프로젝트의 경우는 제도의 지형을 좀더 넓히는 역할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갤러리나 미술관 중심으로 한정된 예술의 역할에 대해 긴장감도 줄 수 있을 것 같구요.

끝으로 그동안 진행됐던 공공미술 사업들에 대해서 세부적인 자료가 남았으면 해요. 문화정책적 관점에서 생겨난 기금을 받아 하는 일이라 사업을 성공적으로 실행했다는 결과 위주의 보고를 하게 되는데 과정상의 디테일한 얘기는 공유가 잘 되지 않아요. 결과 보고서에 과정상의 일들을 담아내는 데 한계가 있거든요. 앞으로 진행될 공공미술 사업의 디딤돌이 되기 위해 과정의 기록과 공유가 중요하다고 봐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제도화되어서 더 설득력 있는 공공예술 프로젝트가 진행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